

THE LORD REVIVES



하나님의 부흥

말레이시아를 위한 40일 금식과 기도

본 기도 책자는 말레이시아 교회 연합(NECF) 주관으로
매년 7월22일 부터 말레이시아의 독립기념일인 8월 30일까지
‘말레이시아를 위한 40일간 금식과 기도’ 를 돕기위해 발행합니다.

말레이시아 내에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로 출판하며
한국어 판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레이시아의 선교적 상황을 바르게 알리고
기도 후원을 일으키기 위해 한국의 선교단체에서 번역하여 배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

말레이시아를 위한 40일 금식과 기도

이 땅의 교회로 말레이시아를 새롭게 하소서!

들어가며

사 전에서는 부흥을 “일정 기간의 모호함 또는 침묵 후에 있는 생명의 회복, 의식자각, 생기, 힘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것들에 흥미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안에서 열정이 다시 불붙는 것’입니다. 부흥은 쇠퇴하여 무감각해진 교회의 생명력이 영적인 새로워짐을 맞이하는 특별한 시기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도구인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부흥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뭇가지에 피어난 불씨가 인하여 숲 전체를 태우고 더욱 빠르게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충만한 설교가 부흥의 서곡을 이끌었지만, 모든 부흥은 깊은 기도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전 영역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이 변화가 사회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찬란한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거룩한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 기도책자는 성경본문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은 오로지 당신의 기도를 돕는 도구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40일간의 금식과 기도 가운데 당신을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목 차

- 4 들어가며
- 5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 1517년, 개신교 종교개혁
- 6 1일째
- 7 오순절 (사도행전 2:1 - 4)
- 9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 18세기 첫번째 대각성
- 11 2일 - 7일째: 자신을 위한 기도
- 12 오순절 (사도행전 2:5 - 13)
- 15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 1973년, 바리오 부흥
- 16 8일 - 13일째: 가족을 위한 기도
- 17 오순절 (사도행전 2:14 - 21)
- 21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 1742년, 스코틀랜드 캠버스랭 지역의
워크(Wark)
- 23 14일 - 20일째: 교회를 위한 기도
- 24 오순절 (사도행전 2:22 - 28)
- 28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
- 29 21일 - 27일째: 공동체를 위한 기도
- 30 오순절 (사도행전 2:29 - 36)
- 35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 1933년, 산둥 부흥
- 37 28일 - 33일째: 일터를 위한 기도
- 38 오순절 (사도행전 2:37 - 41)
- 42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 19세기를 바꾸어 놓은 노르웨이의
영적 대각성
- 43 34일 - 39일째: 정부를 위한 기도
- 44 오순절 (사도행전 2:42 - 47)
- 48 40일째
- 50 참고문헌
- 53 지역별 동역자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1517년, 개신교 종교개혁

대 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무명의 가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1486-1546)는 로마서 1장 17절과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의의 본질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그는 개인적인 영적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회 계급 내의 조직적인 타락과 실책, 특권의 남용에 대해 깊이 근심하던 루터는 그의 생각과 저항을 나타내는 95개 조항을 작성하였다. 그의 견해는 그가 1517년 10월 31일, 위령 성월 전야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게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케케묵은 중세 기독교 개념의 근간을 흔들고 전 유럽을 삼시간에 휩쓸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로 번졌던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루터는 1520년과 1521년에 각각 교황과 황제 찰스 5세에 의해 불법자로 낙인이 찍혔다. 그는 그 후 종교 개혁의 근본 원리가 되는 성경의 최고 권위와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됨을 논증하는데 20년을 보냈다.

루터의 부흥운동은 세계의 주요 개신교 전통교회 곧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루터교회, 스위스와 프랑스,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의 찰빙글리와 칼빈주의, 영국 성공회와 더불어 개신교라 알려진 교회들까지 번져 나갔다.

7월 22일 (화요일)

1 일째

“부흥의 선례들, 그 부속 사건들과 결론은
오순절의 사건과 실제적으로 동일하다.”

~ 찰스 피니 (1792-1875, 미국 식민지 시대의
“미국 부흥의 선두주자”,
두 번째 대 부흥운동의 지도자)



“세상에 알려진 모든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의 재현이다.”

~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1899-1981, 20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

TRANSFORMING THE
N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THE
LORD
REVIVES

오순절 (사도행전 2:1-4)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To be continued...

7월 22일 (화요일)

1 일째

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하나님이 의무를 소홀히 하신다고 항의하려고 또는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일하시도록 강요하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반대로 신자들은 그들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약속을 묵상하며 믿음을 훈련하고, 또 자신들의 근심을 하나님의 품에 내려 놓아 그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기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 존 칼빈 (1509 - 1564,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

40 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모든 삶의 영역 - 개인, 가족, 교회,
지역사회, 일터, 나라와 정부 그리고
세계 - 속에서 인정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 : 12 - 13)

PRAY

시편 36 : 5 - 10

여호와여 주의 인지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18세기 첫 번째 대각성

미 국교회들은 18세기에 상업의 발달과 부와 물질주의 팽배의 결과로 영적인 마비상태가 되고 말았다. 1679년에 보스톤에서 열린 한 장로교 집회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열정적인 목사들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슬퍼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진 1727년의 지진은 잠시 동안 사람들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들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개혁보다 더 한 어떤 것이 요구됨을 인식한 사람들은 기도하며 부흥을 부르짖었다. 이러한 영적인 태동은 특별히 1730년대와 40년대에 다른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첫 번째 대각성을 이끌었던 부흥은 1734년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관 하에 메사추세츠 주의 노샘프턴에서 일어났다. 그의 열정과 힘으로 가득 찬 설교는 교회의 성도들을 깊이 있게 감화시켰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었다. 에드워드는 회고하며 말했다. “그때만큼 마을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적이 없었고, 더더욱 그렇게 애통함으로 가득 찬 적도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그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그 파급효과는 널리 퍼져갔다. 조지 휘트필드가 1740년과 1743년 사이 뉴잉글랜드를 방문하면서 부흥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보스톤에서는 목사들이 깨어나고 교회는 가득 찼으며, 가정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선교운동은 강력하게 확산되었다. 그 파급 효과는 미국 기독교 역사에 영구적인 충격을 남기면서, 뉴욕, 뉴저지, 펜실바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로 퍼져갔다.

또한 이 대각성으로 교파간의 협력이 일어나고 복음이 노예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신자들은 기독교가 보통 사람에게까지 인격적인 것으로 강조되자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믿게 되었다. 그들은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영적인 새로움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줌으로써 삶의 방식과 신앙심, 그리고 자아의식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쳤다.

역사학자들은 이 새로움을 영국의 복음주의 또는 감리교의 부흥과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창출한 “위대하고 국제적인 개신교의 지각변동”의 한 부분으로 본다.

자신을 위한 기도

2일 - 7일째

“부흥은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께 불타있을 때에 일어난다.”

~ 존 웨슬리 (1703-1791,
설교자이며 감리교 창립자)



“신자들 사이의 대대적인 부흥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재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로 특징 지워진다.”

~ 빌 브라이트
(1921-2003, C.C.C 창립자)

TRANSFORMING THE
N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THE
LORD
REVIVES

오순절 (사도행전 2:5-13)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To be continued...

개인 - 내면 돌아보기

2일 - 7일 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이며 동일한 의미이다.

~ 칼 바르트 (1886 - 1968, 스위스 개혁 신학자)

가 족과 공동체, 직장,
나라와 세계 변혁의
유일한 실제적인 소망을
이루려 할 때, 신자들의
개인적인 변화는 핵심적인 것이다.

우리의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PRAY

<p>2일 (7월 23일 수)</p>	<p>시편 51 • 고백 (vv 1-4) • 간구 (vv 10-13)</p>
<p>3일 (7월 24일 목)</p>	<p>로마서 12:1-8 • 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도록 • 나의 관심을 주께만 고정시켜 하나님이 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취하시도록, 내가 전적으로 변화되도록 • 나의 영적인 은사를 발휘할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p>
<p>4일 (7월 25일 금)</p>	<p>로마서 12:9-13 • 죄에서 돌이켜 선한 일을 붙들며, 나의 사랑의 행동이 실제적이며 신실하게 되도록 •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존귀로 대하도록 •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 필요가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대하고 잘 대접할 수 있도록</p>

PRAY

<p>5 일 (7월 26일 토)</p>	<p>로마서 12:14-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내가 항상 축복함으로 반응하도록 •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 교만하지 않으며 기꺼이 낮은 자리의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p>6 일 (7월 27일주일)</p>	<p>로마서 12:1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신자와의 관계의 모든 면에서 선하고 존귀하며 진실하게 행하도록 •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갖도록 •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 자신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p>7 일 (7월 28일 월)</p>	<p>로마서 12:19-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의한 것을 나 스스로 급히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도록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1973년, 바리오 부흥

하 나님이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셨던 일에 고무된 클라빗의 젊은 학생들은 바리오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사라왁의 바리오라는 고산지 주민인 클라빗 종족들은 1940년대에 집단적으로 개종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것이었다. 젊은이들은 기독교를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님들의 새로운 신앙을 단순히 따르고 있었다. 이들은 신앙적인 확신과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결핍으로 인해 결국 교회 안의 여러 활동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1963년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대결로 인한 변화와 정글에서 도시로 옮긴 선교사들의 사역방향 전환을 이유로 교회의 영적 성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72년에 기도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났다. 전도팀들은 기도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결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났다.

1973년 10월 4일에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자신을 겸손하게 비운 한 선생님과 한 젊은 학생모임에 강하게 임하였다. 그들은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기쁨과 자유를 나누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를 통해 성령의 불이 마을에 빠르게 번져갔고 심지어 어린이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사람들은 죄의 회개, 용서와 죄 씻음,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복음으로 마음이 녹아져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수백 명이 술 중독과 비도덕적인 습관적인 죄로부터 돌아왔다.

그 이후 1984년과 1985년 사이에 성령께서 또 다른 정글 종족들 중 바크랄란이라는 깊은 정글 마을에 사는 룬바왕 종족에게 크게 역사하셨다.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사라왁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보르네오 복음주의 교단(Sidang Injil Borneo)이 탄생하는 놀랄만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가족을 위한 기도

8일 - 13일째



“부흥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의 담대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빌 브라이트



TRANSFORMING THE
N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THE
LORD
REVIVES

오순절 (사도행전 2:14-21)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To be continued...

가족 - 그리스도의 대사

8일 - 13일째

하늘에는 지속적으로 간구하지 않은 기도의 응답들로 가득 차있다.

~ 빌리 그레함

가 족은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이다. 이론적으로, 가족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친밀함, 사랑과 신뢰를 배우는 곳이다. 한 인간의 최초의 교육인 도덕적 가치와 질서, 정의에 대한 개념 등을 배우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가족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제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족구조 역시 깨어지고 있다. 한 예로, 결혼은 모든 사회에서 인정되는 제도지만

간통은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혼이 보편화되었고 싱글 부모 역시 일반화되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쉽게 무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후의 책임을 포기하는 남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PRAY

8일
(7월 29일 화)

창세기 1:27, 28; 2:21-23

-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도록
-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독교인 가정들과 결혼 관계를 묶어 주시도록
- 기독교인 가정들이 사회에서 역할 모델이 되도록
- 모든 기독교인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 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도록

PRAY

<p>9 일 (7월 30일 수)</p>	<p>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창 2:24; 엡 5:21-33; 히 1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 서로를 사랑하고 일생동안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 결혼 관계를 존중하고 성적인 관계의 신성함을 지키고 서로를 거절하지 않도록 •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p>10 일 (7월 31일 목)</p>	<p>아이와 부모를 위하여 (신 5:16; 6:4-9; 시 78:1-7; 엡 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합리적이고 사랑으로 행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경건함의 본을 보이도록 • 부모들이 지혜와 성실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 어린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p>11 일 (8월 1일 금)</p>	<p>비기독교인 배우자를 위하여 (고전 7:12-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인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 결혼 생활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 비기독교인 배우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p>12 일 (8월 2일 토)</p>	<p>독신자와 젊은이를 위하여 (고전 7:25-40; 딤후 2: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 사회적인 압력과 명예롭지 않은 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도록 •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고 정의롭고 경건하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고 고상하고 건전한 말을 하도록 •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거나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섬김의 정신을 따라 살도록

PRAY

13 일
(8월 3일 주일)

황금 면류관의 성도들 (시 71:17-21; 잠 16:31; 딤후 2:1-3)

-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나이든 기독교인들에게 있도록
- 행위에 있어서 온건하고 고상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며 건전한 믿음과 사랑, 인내의 삶을 살도록
-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혜와 자발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치도록
-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으로 열매 맺고 가치있는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1742년, 스코틀랜드
캠버스랭지역의 워크(WARK)

영국에서의 부흥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영적 변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윌리엄 맥켈로우는 1742년 캠버스랭(Campuslang)지역의 ‘워크(Wark : 큰 종교적 부흥의 기간을 일컫는 말)’로 알려진 부흥의 시기에 캠버스랭의 성직자였다. 신실한 수고와 학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설교자였고 사역에서 깊은 회개와 회심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땅 주인이 불합리하게 교회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보상받기 위한 그의 수고가 실패했을 때, 맥켈로우는 천막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뉴잉글랜드의 첫 번째 부흥에 대한 편지들과 설교들을 사용하였다. 관심을 갖는 교회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편지들을 읽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역, ‘워크’를 위한 기초가 놓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구두 수선공과 베 짜는 직공이었던 두 명의 교회 지체가 90명의 가장(家長)들을 모아서 맥켈로우에게 주간강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두 번의 목요 강좌는 적은 수의 인원이 참가했다. 그러나 2월 14일 주일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관으로 찾아왔고 여러 날 동안 기도와 함께 영국과 미국의 놀라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진 주간강좌에는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죄와 다가올 심판의 긴박성에 대해 고백했다. 나중에는 캠버스랭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맥켈로우가 매일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해 7월 조지 헛필드의 방문은 그 추진력에 불을 붙였다. 한 번은 성찬식에 약 30,000명의 남녀가 모이기도 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캠버스랭 주변에서 왔다. 부흥은 급속히 퍼져나갔다. 오래지 않아 다른 사건이 킬시드에서도 일어났다.

캠버스랭이 스코틀랜드 부흥의 정점으로 일컬어지는 반면 그것이 성령의 참된 역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워크(Wark)’는 선교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역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따뜻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가져왔다.

교회를 위한 기도

14일 - 20일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분열된 상태이다.”

~ 찰스 피니



TRANSFORMING THE
N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THE
LORD
REVIVES

오순절 (사도행전 2:22-28)

이 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시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To be continued...

교회 - 진정한 기독교인 공동체

14일 - 20일째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능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성취하는 것은 적다.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회심자는 적다. 많은 단체들에 비해서 결과는 보잘것없다.

~ R. A. 토레이 (1856-1928, 미국의 복음전도자)



늘날 말레이시아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여러
나라의 기독교인처럼
높은 개인주의적

신앙형태를 취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찬양부터 설교까지 모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많은 강조점이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는 현대사회의
철학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보장된 정체성에 재빨리 편승해
왔다. 물론 교회는 제자도, 청지기적
삶도, 사회적 관심과 선교와 같은

보편적인 기독교 가르침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개인 중심적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개인이 '느끼는 필요들'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교회가 점차 상담과
치료를 위한 센터 - 부부 문제, 심리학
(또는 내적 치유), 건강, 재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 상담과 봉사를 위한 - 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포럼 5, pp.
6-7)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소서!

PRAY

14일
(8월 4일 월)

살아있는 교회 (요 17:6-26; 행 2:42; 딤후 2:1-8)

•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과 지식을
회복하도록(엡 5:23)

PRAY

<p>14 일 (8월 4일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령에 의해 깊이 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를 공급받도록 - 서로를 돌아보는 강력한 교제가 회복되도록 •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되도록 •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갖도록 • 하나님과 서로에게 순종하도록
<p>15 일 (8월 5일 화)</p>	<p>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고전 1:18-2:5; 딤후전 4:6-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과 지식이 풍성하게 되며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도록 • 진리의 신실한 통로가 되고 메시지와 설교에 있어서 성령과 능력의 증거가 되도록 • 사랑, 믿음과 순결함 안에서 행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말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도록
<p>16 일 (8월 6일 수)</p>	<p>교회 지도자들 (고전 1:10-17; 3:5-9; 딤후전 3:1-13; 5:17-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위와 자질을 갖추어 비난받지 않으며 겸손하고 존경받으며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 영적인 깊이와 믿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으며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 한 마음을 품어 다툼과 질투의 영을 대적하도록 • 가족을 잘 돌보는 능력을 주시도록 •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는 일군이 되도록
<p>17 일 (8월 7일 목)</p>	<p>다양한 사역 (고전 3:10-15; 행 6:7; 9:31; 12:24; 16:5; 19: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역자들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 각자의 은사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 성령 충만과 지혜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도록

PRAY

18 일
(8월 8일 금)

성도들을 위하여 (행 4:32-35; 딤페전 6:3-19; Tit 3:1-11)

- 한 마음과 한 영 안에서 교제하도록
- 관대함으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를 사랑하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 정의, 경건함, 믿음, 사랑, 자족함, 온유함, 그리고 역경 가운데 견고함을 추구하도록

19 일
(8월 9일 토)

고난중에 있는 이를 위해 (요 12:24-26; 딤페전 3)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따라오는 박해를 기대하도록
-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도록
- 성령과 진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구비되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 열정적으로 기도에 헌신하도록
- 모든 일에 있어서 신속하게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20 일
(8월 10일 주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엡 4:1-16)

- 지역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며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 교단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거대한 교제의 끈으로 결속되도록
-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능력의 강력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의료 선교사인 하디는 1903년 월산의 ‘장로교 선교사 기도회’에서 자신의 13년간 한국에서 사역이 ‘순전함도 확신도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행한 하디의 고백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의 간절한 열망은 모든 회중들에게 퍼져나갔다. 그 결과 성경공부 그룹들과 기도회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부흥의 물결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었고, 다음해에는 그 운동의 강도가 더해졌다.

1905년에서 1906년에 가난과 일본의 지배로 생겨난 분노의 물결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교회 지도자들은 용서와 인내를 계속 설교했다. 수백 명이 회심을 했다. 그 물결은 평양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영국 웨일즈(1904-05년)와 인도의 부흥 소식을 듣게 된 장로교 선교사들은 그와 같은 부흥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1907년 1월, 만 오천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에 모여서 열흘 간 사경회를 가졌다. 사경회 동안 성도들 사이에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 고백과 보상, 지난 날의 잘못을 되돌리며 성령의 하나됨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다. 한국 개신교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놀라운 회복은 교회와 사회 속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교회들은 일본과 러시아, 중국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한 불타는 전도 열정에 사로잡혔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독립을 위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조국을 위해 그들 스스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기도와 금식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매일 새벽과 밤마다 기도회로 모였다.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한국 교회는 79,221명의 새로운 신자를 얻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21일 - 27일째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 오셔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 조나단 거포스(1859-1936,
최초의 캐나다 장로교 중국 선교사)



TRANSFORMING THE
N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THE
LORD
REVIVES

오순절 (사도행전 2:29-36)

형 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시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To be continued...

공동체 - 사도행전 29장의 삶

21일 - 27일째

기도가, 삶에서 사라진 영적 황홀경 속으로 짧은 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또는 기도가 온 종일 그의 마음 속에 진지하고 깊이 있게 그의 마음을 붙들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했거나, 선행을 하고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나아가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그날이 말해 줄 것입니다.

~ 본회퍼 (1906-1945, 독일 루터교 목사이며 신학자)

본 명히 공동체 발전과
구조적인 불의에 대한
지역교회의 참여는
미미했다. 최선의 참여라고

해봐야 임시방편적인 접근이었고
대부분 개인적인 수준이었다.

아마도 복음전도와 국가발전 사이의
긴장이 사회구조 변혁에 참여하는데
뒷걸음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듯하다.

이는 다민족, 다종교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이며, 어떤 형태의 사회구원을
위한 노력도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위험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간과함으로 지역교회들이 시대에

뒤쳐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빈곤,
종족관계, 부패와 사회 경제적인 불법과
같은 국가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문제
제기를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원화된
영성의 결과로 고립되고 만다.

교회의 사명은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기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므로 우리의 문화와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PRAY

21 일
(8월 11일 월)

세계의 그리스도인 (마 5:13-16)

-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뿌리를 두고 사랑하며, 지역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격려 받도록
-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과 냉랭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PRAY

<p>22 일 (8월 12일 화)</p>	<p>공동체 섬김과 성장 (약 1:27; 2:14-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도록 • 교회들이 실제적인 방법들로 각각의 공동체들을 섬기기 위한 기회들을 붙잡도록 • 공평과 정직, 책임, 훈련, 친절 그리고 연민의 가치들을 장려하도록 • 개인과 단체행동을 통하여 좋은 통치와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 구조와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각자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p>23 일 (8월 13일 수)</p>	<p>교육 (단 1:3-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을 보는 기독교 교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의 강요보다 현명하게 하나님의 원리들을 적용하는데 용기를 갖도록 •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써 학교 이사들과 관리자들에 신실한 가치들에 기초를 둔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 학부모-교사 연합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을 위하여 •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도록 • 학교의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힘차게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의 칭찬받으며 신실한 조언자들을 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 그리스도인들이 정책과 교과과정을 짜고 교육의 모든 면에 영향력을 끼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p>24 일 (8월 14일 목)</p>	<p>범죄 (시 127:1-2; 렘 2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부도덕한 행동들이 감소되도록 • 특별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모든 종류의 흉악한 범죄들로부터 보호되도록 • 지역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을 위한 복지에 기여하는 선한 이웃들이 되도록

PRAY

<p>24 일 (8월 14일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과 이기심 그리고 냉랭함 대신, 관계와 사심 없는 마음과 온정적인 영성으로 충만하도록 • 공동체와 마을 그리고 도시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끊임없는 증보자가 되도록
<p>25 일 (8월 15일 금)</p>	<p>연약함 (신 10:17-19; 24: 14,15,17; 말 3:5; 약 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 노숙자 그리고 빈곤층을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도록 - 기독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도록 • 이주 노동자들을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 착취와 차별대우 그리고 어떤 것이든 그들을 격하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 삶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 기독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친절과 환대를 경험하도록 •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관대하게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p>26 일 (8월 16일 토)</p>	<p>사회와 경제 정의 (사 1:16, 17; 56:1, 2; 59:15b-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안전과 돌봄 속에서 사랑과 평화, 존엄, 평등 그리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 모든 국민이 종족과 나이, 종교와 성별에 상관없이 경제적 권리들을 누리도록 • 경제와 사회 개발로부터 보호 받도록 (특별히 말레이시아 반도에 사는 가난한 소수 부족민 그리고 동 말레이시아의 사바, 사라왁주(州) 현지인들을 위하여) • 인권 존중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 종교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도록

PRAY

26 일
(8월 16일 토)

-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형태의 부정에 대항하여 현명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 정의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 억압받는 이들이 구원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27 일
(8월 17일 주일)

- 노인 (잠 23:22; 딤편 5:1,2)**
- 노인들이 존중 받고 위엄이 있으며 사랑 받는 존재의 기쁨을 느끼도록
 -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믿음의 빛 가운데 주어진 수명을 살도록
 - 어린이들이나 보호자들이 사람과 헌신으로 노인들을 돌보도록
 - 가정에 학대나 속임이 없고 헌신된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충만하도록
 -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전하기 위한 비전을 새롭게 세우도록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1933년, 산둥(山東) 부흥

산둥 부흥의 씨앗은 남침례교단 북중국선교(NCM)의 기도 모임에서 뿌려졌다. 노르웨이 복음주의 루터교 선교사였던 마리 몬센(Marie Monsen)이 어떤 모임에 참석하던 중 두 개의 간단한 질문에 사로잡혔다. “당신은 거듭 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처음부터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는데 몰두했다. 1920년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미션학교를 제한하는 반제국법이 통과되었다. 그 법은 또한 선교사들에게 등록을 강요했다. 학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정치적 흐름의 변화로 인한 압박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그 결과 더 이상 새로운 선교사들이 임명 받을 수 없었고(1925년부터 1934년까지) NCM은 재정적 결핍으로 고통을 당했다. 중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 깊이의 부족 또한 크게 우려되었다.

선교사들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무능력, “진정한 영적 능력”의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남침례교 이사회 선교사 지도자인 Dr. C. L. Culpepper의 보고에 의하면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임명 받기 전에 “성령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중국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대신 그들을 기독교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했다. 동시에 반 기독교 운동이 강력하게 휘몰아 쳤다.

상황은 많은 선교사들이 포기할 정도로 황폐해 졌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4년 동안 기도했고 모든 침례교회와 그 지역 교회들에 번져갔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은 지역교회였다. 중국 평신도와 목사들은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돕고 관리하는데 활발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 회복되었다. 신학생들은 주말마다 시골 마을들을 방문하여 전도하는 찬양대들을 만들었다. 몇몇의 번창한 자생교회들은 완전히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다. 중국 신자들 가운데 성경공부는 새로운 관심거리가 되었고 교회 출석자들은 몇 배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고 회개와 죄의 고백은 교회 가르침의 주안점이었다.

옛 습관과 우상숭배의 관습들은 바뀌었다.

영적 각성은 산둥성(Santung)을 넘어 호난성(Honan)과 만추리아(Manchuria) 그리고 안호에(Anhoei)에 번져갔다. 결국은 다른 교단까지 퍼져갔다.

산둥(Santung) 부흥은 약 5년 동안 지속되었다. 수 백의 교회들은 회복되었고 수천의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을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어떻게 추수하는 자로 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산둥 대부흥에 기여한 요인들에는 자생 지도력과 신유, 여성도들의 역할 증가 그리고 선교사들과 중국인들(체면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해 주는 용기로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한) 사이의 화목 등이 있었다.

일터를 위한 기도

28일 - 33일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과거가 아닌 근본적인
삶의 개선이 동반될 때 효과가 있다.
실제적인 회개가 없는 철야 기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

~ A.W. 토저 (1897-1963,
미국 설교자 및 작가)



TRANSFORMING THE
N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THE
LORD
REVIVES

오순절 (사도행전 2:37-41)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To be continued...

직장 -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양

28일 - 33일째

항상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영적인 기도는 노동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에 믿음을 담대히 하여 일상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려 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 마틴 루터

직장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 전문가들과 사업가들은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부의 분배와 그들의 세대에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소득의 중요성과 성실함, 가난한 자들의 권력배분, 사회 정의와 자원의 선한 청지기 같은 공공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나님은 경제 정의와 공정한 사업 활동보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는 빈곤 퇴치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신명기15:4).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궁핍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몹시 마음 아픈 일이다.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이 놓여 있다. 교회는 비즈니스를 경제 변혁과 사회

개혁에 영향을 미쳐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기독교인 사업가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데 있어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된 백성들을 통해
우리들의 경제영역과 직장이 변화되게
하소서!

PRAY

<p>28 일 (8월 18일 월)</p>	<p>삼상 15:22; 잠 15: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시각으로 직업이나 사업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 사업장에서 사역자와 선교사로서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힘을 주시도록
<p>29 일 (8월 19일 화)</p>	<p>신 8:1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도록 • 포기의 순간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p>30 일 (8월 20일 수)</p>	<p>신 15: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책임과 목적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 공동체에서 생산적인 일원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관대하도록 • 공동체에서 빈곤 퇴치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p>31 일 (8월 21일 목)</p>	<p>잠 10:9, 11:1; 약 4:7-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한 수익과 공정한 사업 그리고 근면한 모델이 되도록 • 모든 종류의 유혹으로부터 신속하게 피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p>32 일 (8월 22일 금)</p>	<p>빌 4:1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 사역자들 특별히 시골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에 관대하도록

PRAY

33 일
(8월 23일 토)

벧전 2:9-12

-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 직장사역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제변혁과 사회변혁이 가능하고 창의적이 되도록
- 공공 이익을 위한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
19세기를 바꾸어 놓은
노르웨이의 영적 대각성

노르웨이에서 영적 대각성은 아주 거대한 운동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하우스(Hans Nielsen Hauge)는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1796년 그의 회심과 선교의식은 결국 노르웨이의 국가적 부흥을 가져왔다. 25세에 개인적인 강력한 영적 각성을 체험하고, 두 달 후 그의 공동체 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절 사람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하거나 대중집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목회자와 율법주의의 거짓 확신 속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하우스는 그런 구속들을 넘어서서 성직자들의 개혁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죄의 자각이 회복되는 것을 보길 원했다. 그리하여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는 가정모임들을 세우려고 여러 마을을 여행했다. 그는 모두가 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그는 평신도가 공공장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였다고 하여 10번이나 투옥되었다.

그 운동은 영혼구원을 위한 강력한 열정을 이끌어 냈고 그 결과의 하나로 1842년에 노르웨이 선교사 협회가 세워졌다. 그것은 대부분 평신도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영적 대각성은 직장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는 것과 사업을 선교를 위해 하는 것을 통해 확산되었다.

1811년 감옥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하우스는 농부로 일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 신자들을 도왔고, 도시 중산층에 의해 심하게 착취당하는 시골의 가난한 소작농들을 돕도록 그들을 격려했다.

하우스의 운동은 노르웨이의 사회정치적인 부흥에 기여했고, 1814년 한 국가로 노르웨이가 형성되는데 유력한 요인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노르웨이의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의 전직 의장이었던 세저스터드(Francis Sejersted) 교수는 “하우스의 운동은 노르웨이의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요인으로 기여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1966).

정부를 위한 기도

34일 - 39일째



“부흥은 마치 밀물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힘과 같다. 만약 당신이 밀물이 빠진 후 런던의 항구 아래로 내려가보면 당신은 범선들과 작은 바지선들이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빠진 배들을 움직이기 위해 모든 왕의 말과 모든 왕의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들을 움직일 수는 없다. 하지만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들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은혜와 아름다운 것들의 파도를 타기 시작한다. 밀물은 모든 것을 변화 시킬 수 있다.”

~ 찰스 스펀전 (1834-1892,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영국 개혁 침례교 목사)



TRANSFORMING THE
N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THE
LORD
REVIVES

오순절 (사도행전 2:42-47)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To be continued...

정부 - 변화 시키는 자로써의 부르심

34일 - 39일째

자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할 때, 많은 경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무릎을 꿇음으로 이끌어 나갔다.

~ 아브라함 링컨 (1809-1865, 미국의 16대 대통령)

한 국가의 지도력은 변화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고,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 가치들을 공유하지 않는 지도자들로 이뤄진 정부는 기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억압당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이나 의회

의원으로서 국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들의 관직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말레이시아의 국민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변화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정부가 변화되게 하소서!

PRAY

34 일
(8월 24일 주일)

선한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롬 13:1-7)

- 권위자를 존경하여 우리로 인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도록
-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감을 공감하도록
- 세금납부를 이행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준법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도록

35 일
(8월 25일 월)

연방정부의 그리스도인 (창 41:46-49; 엡 10:3; 단 2:48; 6:1-3)

- 정부 각 영역에서 변화를 위해 주요 직책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들이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도록

PRAY

<p>35 일 (8월 25일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자와 국민이 은혜를 발견하여 온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도록. • 기독교적 신념을 굳게 붙잡으며, 탁월한 영성과 지혜 갖추도록
<p>36 일 (8월 26일 화)</p>	<p>지방정부 관리와 의원을 위해 (신 1:13; 출 18:17-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거부하는 자가 되도록 • 현명하고, 화합하고, 존경 받는 지도자가 되도록 • 국민들의 행복(번영)을 위해 담대히 말하는 능력과 용기가 부여되도록 • 권위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능력을 갖추어 권위자가 투명함과 깨끗함,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도록, 연방헌법을 중시하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p>37 일 (8월 27일 수)</p>	<p>그리스도인 법조인을 위해 (신 1:16-17; 16:19-20; 25:1; 고후 19: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고, 현명하며, 존경 받는 자가 되도록 • 의롭게 판단하고, 불공평하지 않도록.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을 말할 수 있도록 • 독실한 본을 보이도록, 정의와 공정함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적 무대에서 영향을 끼치도록, 연방헌법을 중시하면서도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PRAY

38 일
(8월 28일 목)

그리스도인 법 집행자들 (잠 24:23-25; 29:23-27)

- 적대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지혜가 있도록, 바르고, 치우치지 않고, 합법적인 것을 행하는 용기와 능력을 갖도록
-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몸)과 마음과 이성(정신)을 지켜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경찰내부의 변화를 이루도록 고위직에도 진출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 부패 없고, 공정하고, 정당하며, 사회평화와 공공질서를 세우는 경찰개혁이 있도록

39 일
(8월 29일 금)

파수꾼으로써 그리스도인 (사 26:6, 7; 겔 33)

- 방심하지 않고, 주의 깊게, 말레이시아의 ‘무너진 틈’ 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도록
-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8월 30일 (토요일)

40일째



“하나님께서서는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갈증에 있을 때, 몇몇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잠깐 동안의 회복일 뿐이다. 그것은 여름에 곤충들이 잠시 수분을 몸 안에 모아두는 것처럼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에게도 그것은 잠깐의 만족뿐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끝없이 공급되는 곳, 생명의 물의 근원에게로 가자! 주님께서서는 살아 있는 샘이 되셔서 그분에게 오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충만케 된 것을 보실 것이다.”

~ 요한 승 (1901-1944, 중국인 전도자.
1920년대~30년대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의
중국인 부흥운동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TRANSFORMING THE
N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THE
LORD
REVIVES

8월 30일 (토요일)

40일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철로를 놓는 것과 같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힘센 기관차와 같다. 그러나 힘센 기관차는 철로 없이는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

~ 워치만 니(1903-73, 중국의 the Church Assembly Hall 의 창립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2)



PRAY

이사야 61 : 1 - 3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고 문 헌

1. Christopher Choo, *The Ba Kelalan Revival of East Malaysia*, PJ: El Shaddai, 1994
2. *Eerdman's Handbook to the History of Christianity*, England: Lion Publishing, 1977
3. Elmer Towns & Douglas Porter, *The Ten Greatest Revivals Ever*, Michigan: Servant Pub., 2000
4.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I & II, 1975
5. Samuel Hugh Moffett,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vol. II, New York: Orbis Books, 2005
6. Solomon and Lillian Bulan, *The Bario Revival*, KL: Home Matters Network, 2004
7. Wesley Duewel, *Revival Fire*, Zondervan, 1995
8. Ypung Hoon Lee, "Korean Pentecost: The Great Revival of 1907", *AJPS*, 2001, pp73-83
9. www.en.wikipedia.org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CHARITY

Sow in your meal savings (envelope provided)

PRAYING ROUND THE CLOCK

Log on to *www.necf.org.my*

NOTE:

For information on individual states and federal territories please log on to *www.necf.org.my* For Your Intercession.

지역별 동역자

Kangar	Ps Lim Wai Ming	012-4771956
Langkawi	Rev John Gomez	012-2919942
Alor Setar	Rev Leonard Lim	04-7331712
Sungei Petani	Dr Sonny Tneoh	012-4753786
Kulim	Ps Silas Singh	017-4618211
Penang	Rev Koe Choon Huan	04-8280322
Seberang Prai	Ps Sam Hari	016-4431030
Taiping	Ps Simon Chandran	05-8086458
Parit Buntar	Ps Rowland Lee	016-4320400
Kuala Kangsar	Ps Gan Jin Teck	016-2226189
Ipoh	Rev Christie Kuan	016-5577202
Cameron Highlands	Rev Jeremiah Lee	012-9582988
Sitiawan	Dr Chan Geok Oon	016-2088577
Telok Intan	Ps Rachael Kamala	05-6211392
Rawang	Ps David Tan	03-60918150
Klang Valley	Dr Tan Nget Hong	012-3817856
Kajang	Rev Chan Nam Chen	03-87361890
Klang	Pr Rajan Ratnam	03-3324095
Seremban	Rev Voon Yuen Woh	012-6081007
Banting	Rev Jevaretnam Sowria	012-9350881
Melaka	Ps James Khrisnan	017-6712077
Port Dickson	Ps Zadok Jeevan	012-2971531

Batu Pahat	Saramma Abraham	017-7996053
Labis/Segamat	Rev Michael Martin	013-7363018
Muar	Bro Daniel Tay	012-6800188
Kluang	Rev Selva Sunther	019-7267634
Kulai	Rev Benedict Mutusamy	016-6638789
Johor Bahru	Ps Tay Wah Seng	016-7336622
Kota Tinggi	Ps Tee Meng Heng	012-7574170
Mentakab	Rev Mark Makenthiran	09-2775005
Kuantan	Rev Richard Ong	019-9865561
Kuala Terengganu	Dr C. Cheryan	012-9637842
Dungun	Ps Patsy Lim	013-9319971
Kota Bharu	Ps Hendersen Wee	013-9380950
Kuching	Ps Rodney Achil	013-8165677
Miri	Rev Robinson Simunyi	013-8425031
Bintulu	Rev Hii Kong Ching	086-252651
Sibu	Rev Kong Chong Ling	084-339188
Labuan	Rev David Wong	012-8180665
Kota Kinabalu	Ps Chin Chi Kiong	012-8283116
Tawau	Ps Flora Chong	089-772212
Lahad Datu	Ps Daniel Chong	089-881891
Sandakan	Ps Johnny Wong	019-5833727



NATIONAL EVANGELICAL CHRISTIAN FELLOWSHIP

Office Address: 32 Jalan SS 2/103, 47300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Mailing Address: P.O. Box 8051, Kelana Jaya, 46781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Tel: 603 7727 8227 **Fax:** 603 7729 1139 **Email:** enquiries@necf.org.my

Website: www.necf.org.my